

익산시, 수해 피해 400억원 육박

행안부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중... 내달 재난지원금 확정·특별재난지역 지정 행정력 집중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익산시에서 4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익산시는 지난 20일까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집중 호우 피해 규모가 공공 150억 100만 원, 사유 244억 2,900만 원 등 394억 3,000만 원 규모라고 22일 밝혔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익산시에서 4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폭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94곳과 축사·주택 등 사유 시설 1만 3,700곳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유 시설 중에는 농작물 피해가 201억 7,5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접수된 1만 3,794건 중 1만 1,31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시는 피해를 누락 없이 접수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피해 접수창구를 만들어 지일 인력을 투입했다. 또 주민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청 기한과 방법을 거듭 홍보했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피해 현황을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주말에도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비용과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은 행안부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긴급 복구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자원봉사

자 등 6,400여 명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의 발차와 물품을 후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집계된 피해 규모를 통해 볼 수 있듯 실제 수해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시민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지곡동 주거지역, 오수처리 개선

오수 맨홀펌프장 시설 확충

군산시가 지곡동 주거지역의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맨홀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지곡동 주거지역은 기존 공동주택 및 주변 상가, 학교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맨홀 펌프장(1개소)이 포화상태로 신규 분암·개발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개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자체처리시설)과 압송펌프 및 관로를 설치 및 유지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발생 △처리시설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 우려 △방류 수질 기준 준수의 어려움 △유탁관리에 따른 입주주민들의 부담 등의 우려가 지속됐다.

특히 입주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군산시 하수과는 2022년부터 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마침내 지곡동 일원 오수처리 방안을 확정된 군산시는 2023년 8월 환경청으로부터 최종 변경을 승인받았다.

최종 변경 승인 내용의 핵심은 군산

시가 시 예산을 들여 펌프장과 하수관로를 먼저 설치한 뒤 이후 공동주택 건설 시 민간개발자에게 원인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수처리 개선방안을 계획한 군산시는 당초 지곡동 일원 개발지역 전체를 수용 가능한 중계펌프장(6,500톤) 설치에 검토했지만 이후엔 도로 개설 및 아파트 개발시기, 예산투입의 적절성,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추이를 고려해단계적으로 맨홀펌프장(2개소)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전환된 사업 내용에 따라 군산시는 1단계 맨홀펌프장(4,000톤/일)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를 통해 최근 지곡동 주거지역의 안정적인 오수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맨홀펌프장 설치공사를 착공해 진행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중에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시는 먼저 예산을 선투입하고, 개발사업자들의 원인지부담금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바뀐 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오수처리 기반시설 조성 및 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 변경

군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를 조정 변경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노선변경은 일부 감회 운행되어왔던 시내버스 노선의 정상 운행 재개와 신규 택지개발지 교통편의 제공, 행복플러스 운행구간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옥서 문화마을 방면(2번), 옥구 오산출마를 방면(13번) 등 6개 노선은 정상 운행 재개를 결정했다.

또한, 기존 군산역 종점지를 도강미래체험관 노외주차장으로 임시 변경 방침이다.

신역세권과 디오시티 택지개발지구로의 일부 노선(61번, 88번, 89번)은 우회 운행된다. 향후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와 도심권 300 정척 변경을 위한 시간표 조정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DRT) 행복플러스와 시내버스가 중복으로 운행되고 있는 임피면, 서수면, 대이편은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 통·폐합이 단행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지·간선제 운영의 시범적 도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안내문 및 시간표 등을 배포해 노선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백제왕궁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개최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제14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백제왕궁박물관 기획전실에서 7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지난 5월 진행된 '제14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입상작을 전시하고 사진 촬영 장소를 마련했다. 작품은 총 52점으로 유치부 16점, 초등학교 저학년부 20점, 초등학교 고학년부 16점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력투구'

지역현안·주요 국가예산사업 반영 기재부 설득 총력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댄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 내년도 주요국가예산 확보와 상습 침수구역 재해예방사업 건의 등 현안사업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 시장은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국가어항 개발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말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군산새만금신항 적기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군산시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산업과를 방문한 강 시장은 해양 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확립 및 산업생태계 완

성을 위한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강 시장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하여 국가어항으로 승격되었으나, 아직까지 어항이 개발되지 않아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국가어항 개발 사업', 현 여객선의 퇴역을 대비하고 항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연도 항로 대체여객선 건조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군산새만금 신항 건설'의 경우, 2026년 개항이 작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예산 반영을 건의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연구개발예산과 방문시에는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안전예산과와 행안부 재난경감과를 방문한 강 시장은 올해에도 극한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겪은 군산시 현황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 도심지 침수피해 해소 및 급경사지 정비 등 지역 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군산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시 주요 사업들의 국비지원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 방안을 찾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12월 최종 확정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인사청문회, 내달 5일 확정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대상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는 22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내달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군산시장이 지난 17일 인사청문으로 요청한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가 그 대상이며, 의회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

서동완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위는 서동완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식(부위원장) 의원, 김영자 의원, 서은식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한경봉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8월 6일까지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수해피해 현황·복구 상황·주요 시책 등 논의

익산시가 익산시의회의 의장단과 22일 시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익산시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

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에서 익산시는 수해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 주요 시책 등을 공유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성 등에 대한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향후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연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